

제2의 계몽주의 시대 이끌

떠오르는 패러다임, 유럽

레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 :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과 세계의 미래》

글 | 진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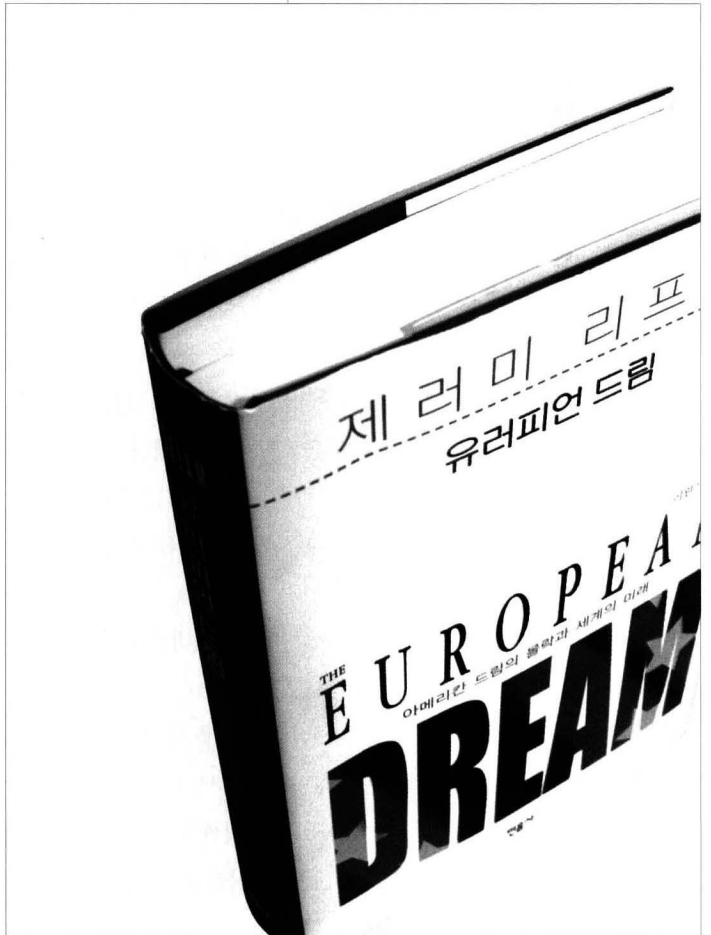
유럽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러나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은 유럽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리프킨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 자기주장이 아니라 정치사상, 국제관계학, 심리학, 인류학, 역사학, 비교문화, 비교사회, 지역학, 과학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학문분야에서 축적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주장이며, 리프킨의 예리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력과 종합력 및 미래 예지력의 산물이다.

유럽이 인류의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유럽모델이 인류의 미래지향적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유럽과 유럽연합 그 자체에 대한 한정된 일차원적 연구를 통해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경제와 사회문화 관계에서 현재 가장 심대한 구조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모델, 즉 아메리칸드림과의 대조와 비교를 통하여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독특하고 흥미롭다.

리프킨이 바라보는 아메리칸 드림은 물질적인 성공을 의미한다. 미국인들에게 물질적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며, 타인의 물질적 성공은 존경의 대상이 된다. 미국인은 자유와 안전(security)을 자율과 연계하여 사고한다. 자율적이란 말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외부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인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성공, 즉 재산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리프킨이 바라보기에 유럽인들은 자유를 어딘가에 배태되어 있음(embeddedness)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자유롭다는 것은 타인이나 환경을 포함한 타자와의 다양한 상호의존관계나 숭한 상호연계망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아메리칸 드림은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존재 추구에서 기인하는 상호 배타성, 개인의 부와 경제성장을 가장 중시하는 성장제일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유러피언 드림은 인간 개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단체, 지방, 국가, 지역, 지구생태계, 지구환경 등과 서로 중층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와 상호연관성을 더욱 중시함으로써 미국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 그리고 존재의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조화와 합의 등을 더욱 중시한다는 것이다.

리프킨의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언 드림에 대한 대조적인 설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째, 아메리칸 드림은 특유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애국주의와 자국 이기주의 및 일방주의에 매몰되기 쉬운 반면, 유러피언 드림은 특유의 존재 연계성과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세계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인들은 일하기 위하여, 즉



재산을 축적하고 경제성장을 위하여 사는 반면, 유럽인들은 살기 위하여, 즉 삶의 질(건강, 레저, 양육, 교육, 치안 등)을 높이기 위하여 산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인의 개인책임 의식은 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순전히 개인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귀결된 반면, 유럽인들은 시장에서의 치열한 적자생존 경쟁에서 도태된 존재도 너와 나의 상호연계성과 전체성 속에서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넷째, 미국인들은 계몽주의적 자연관과 사유재산권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변형 없이 보존한 동시에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반면, 유럽인들은 계몽주의적 자연관과 사유재산 개념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다.

리프킨은 자본주의 시장과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를 재구성하는 일은 중세의 교권과 봉건질서가 무너질 때와 같은 거대한 변화와 전환을 부를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대 이후 민족국가 내부에 제한되어 있던 시장경제는 글로벌화된 네트워크 경제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으며, 베스트팔렌 체제에 기반한 민족국가 중심의 근대국제체제는 민족국가 내의 하부 문화정체성 집단(이민자, 분리주의자, 상이한 인종과 종교집단 등), 시민사회기구(CSOs), EU와 같은 지역통치체제,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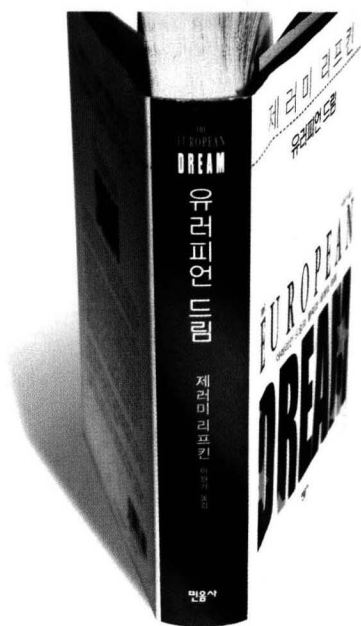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메리칸 드림은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변화와 전환에 적합한 모델이 아닌 반면 유러피언 모델은 적합한 것이라는 게 리프킨의 주장이다. 저자는 아메리칸 드림은 특유의 폐쇄성과 배타성으로 인하여 국가중심성과 주권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반면, 유러피언 드림은 국가중심성을 벗어나 다층 통치체제 혹은 다중심 통치체제(개인, 이익집단, 시민사회기구, 하부 문화정체성 집단, 지방, 국가, 초국가 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통치 권력의 균등 분할체제)를 형성하여 세계화와 네트워크 사회의 등장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프킨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쉽게 공감할 수 있으며 번뜩이는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빛난다. 그러나 이 글의 초두에서 언급했듯이 유럽의 변화는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유럽의 나쁜 변신 가능성, 즉 배타적 지역주의, 신유럽 중심주의, 이민자에 대한 배타성 등을 유럽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 필요하다. 더욱이 유럽연합이 미국에 이은 또 다른 이기적인 패권지역으로서 부상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리프킨은 근대의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책의 논지를 펼치는 데 있어서 포스트 모던적 방법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유럽과 네트워크 경제의 등장으로 인하여 현재 다양한 정체성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은 다분히 포스트 모더니즘적 설명이다. 그런데 리프킨은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언 드림을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구분과 대조를 통하여 설명해 내고 있다. 개념과 대상의 이분법적인 분류와 위계적인 서열화는 근대성의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한마디로 저자는 근대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근대의 방법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러피언 드림》은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현재 국제체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의 제도와 정신을 역사, 정치경제, 사회문화적으로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가며 쉽게 풀어 쓴 수작이자 역작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한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러피언 드림》은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현재 국제체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의 제도와 정신을 역사, 정치경제, 사회문화적으로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가며 쉽게 풀어 쓴 수작이자 역작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한주**

● 이 글을 쓴 저자는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Warwick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국제정치경제 전공)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와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지역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유럽 질서의 이해 : 구조적 변화와 지속》 《탈냉전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 변화》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 등이 있다.



《유러피언 드림 :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과 세계의 미래》
제러미 리프킨 지음 | 이원기 옮김 | 민음사 |
550쪽 | 값 22,000원

제국과 남성의 이미지

《제국주의와 남성성 : 19세기 영국의 젠더 형성》

글 | 이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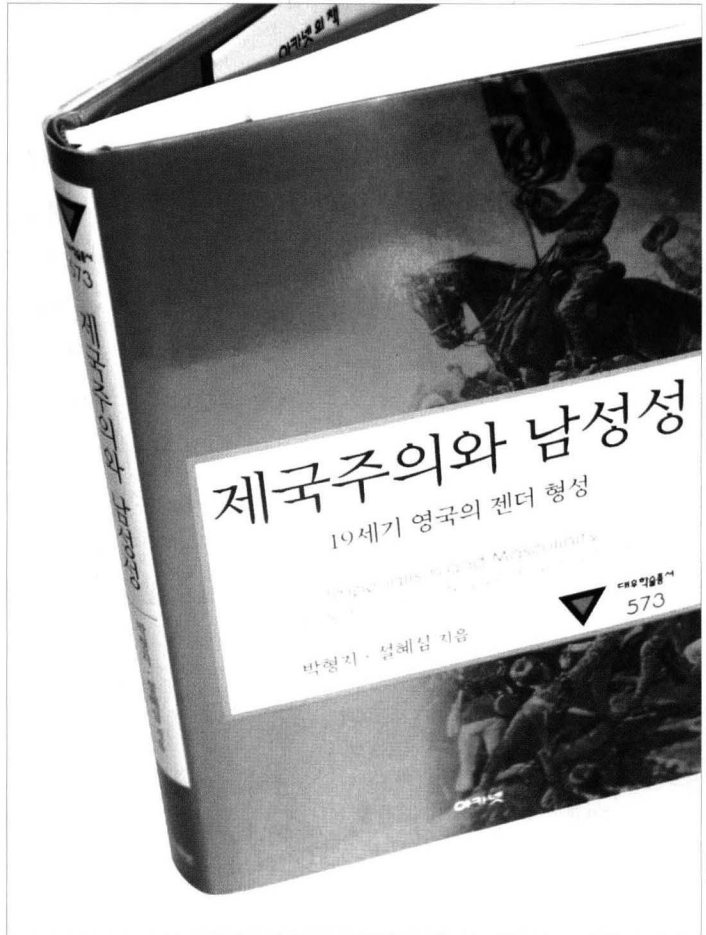
제국주의는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다. 제국주의에 대한 정서가 실제로 한국 민족주의의 토양이 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이 문제는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지배의 차원에서만 검토해 왔다. 근래에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식민지 시대에 각인된 제국주의 문화의 풍경들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지식, 사유, 관행, 일상성 속에 녹아 흐르는 제국주의 문화의 잔흔은 이전에는 의식조차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즈음에는 그 극복을 소리높이 외치지만 손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제국주의와 남성성》은 제국주의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접근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분명하게 밝힌다. 언뜻 훑어보아도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연구다. 우선 문학과 역사라는 인문학의 두 분야가 특정한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실제로 융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학문의 배타적 장벽이 아직도 견고하게 남아 있는 우리 학계에서 영문학과 영국사 연구자가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19세기 영국 사회를 탐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다.

다음으로 이 책은 이즈음 유행하는 탈식민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그 한계점에서 새로운 성찰을 시작한다. 즉 제국주의 담론과 문화가 타자로서의 주변부를 왜곡시킨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이 중심부에 끼친 영향도 아울러 중시한다. 제국주의의 영향은 중심과 주변 두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 이 책은 제국주의가 식민지인뿐만 아니라 제국 지배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억압기제로 작용했다는 최근의 연구경향을 반영한다.

두 저자는 영제국의 번영기였던 빅토리아시대에 제국주의가 이른바 '남성성'의 형성과 변모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추적한다. 여기에서 '남성성'이란 남성에 부여된 이미지와 그리고 그 이미지에 연결된 무수한 상징이나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지닌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영국에서 남성성은 시기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19세기 초의 '댄디'하고 유약한 남성의 이미지는 같은 세기 중엽에 강인하고 엄격한 가부장적 남성의 모습으로 사회 곳곳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 후 빅토리아 시대 말에 이 강인한 남성 이미지는 다시 퇴폐적이고 유태주의적인 모습으로 변모한다. 여기에서 특히 강인한 남성 이미지의 변화는 19세기 중엽 인도 식민지인들의 저항 및 그에 대한 탄압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책은 바로 이 시점, 즉 인도인의 항쟁이 거세게 일어나던 19세기 중엽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첫 장은 영국의 대인도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남성성이 표현된 퍼포먼스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 시기에 인도에 주둔하는 영국 남성을 관리하기 위한 규율에서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가 굳어진다. 2장은 생물학적 인종주의의 담론을 분석하면서, 강인한 남성성의 이미지가 타자로서의 식민지인의 열등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었음을 밝힌다. 냉철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영국 남성의 이미지는 열등한 식민지인의 몸에 대한 담론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의 3장과 4장은 남성성의 문제를 젠더의 시각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다. '집안의 천사'로 표현되는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는 기사도적이고 영웅적인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였지만, 여성에 대한 보호자라는 이 시대의 남성 이미지가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성적 수탈자이자 지배자로 부각되는 역설적인 이중성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 장은 빅토리아 시대 남성성을 창출한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퍼블릭 스쿨의 교육을, 그리고 마지막 장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에서 '신사'의 모습을 해부한다. 신사는 실제로는 제국주의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중적인 것이었다. 한편으로 '신사다움'의 근원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과 범죄의 기동력이기도 했다. 중심에서의 신사 다움과 주변부에서의 착취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논지는 상당히 분명하다. 빅토리아 시대 남성 이미지의 변화는 제국 지배의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남성성은 특히 타자로서의 식민지인과 타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투사를 통해 그 시대 특유의 남성성에 관한 담론과 문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평소 '역사에서 명료하고 분명한 해석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인간사회는 단순하게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와 요인들의 지배를 받는다. 어떤 현상을 단순하게 해석하려면, 그러한 해석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지 않은 무수한 사실들을 외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 책은 계급의 문제와 거리를 둔다. 사실 오늘날 계급은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계급적 관점에서 빅토리아 시대 노동자들의 삶과 문화를 들여다보면 남성의 이미지가 저자들의 논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산업화 초기 노동자들은 조야하고 폭력적인 집단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들이 작업장에서 즐기던 유희는 전통적인 민중문화에서 유래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창던지기, 오소리놀리기, 닭싸움, 개싸움, 황소지분대기 등은 공장주와 부르주아 문필가들의 지속적인 비난의 대상이었다. 19세기 중엽 경제적 번영의 시기에 노동계급의 상층은 이전의 생활과 관습을 버리고 점차로 부르주아의 생활스타일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영향을 준 문화의 요체는 교양이었다. 차 소비, 미술관이며 음악당 출입, 독서와 같은 새로운 여가 패턴은 자생적인 노동자문화의 일부를 이루면서 동시에 지배계급이 노동계급 상층에게 주입한 허위의식의 토대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나는 계급 문제를 고려할 경우 남성의 이미지가 저자들이 밝힌 것과는 다른 경로로 변모했을 가능성을 본다. 특정한 요인이나 변수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이전에 사회사의 전성시대에 계급중심주의에 대한 비판담론으로서 젠더이론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계급이 빠진 젠더 개념은 더 이상 사회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코드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없다. 특정한 변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분명하고 명확한 해석이 한 사회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명확한 것에서 모호함을 찾고, 분명한 것에서 중층적이고 다의적인 가능성을 포착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단순화하는 이 시대에 역사학이 지닌 마지막 특권이 아닐까 싶다. **추천**

여기에서 나는 계급 문제를 고려할 경우 남성의 이미지가 저자들이 밝힌 것과는 다른 경로로 변모했을 가능성을 본다. 특정한 요인이나 변수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이전에 사회사의 전성시대에 계급중심주의에 대한 비판담론으로서 젠더이론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계급이 빠진 젠더 개념은 더 이상 사회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코드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없다. 특정한 변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분명하고 명확한 해석이 한 사회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명확한 것에서 모호함을 찾고, 분명한 것에서 중층적이고 다의적인 가능성을 포착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단순화하는 이 시대에 역사학이 지닌 마지막 특권이 아닐까 싶다. **추천**

이 글을 쓴 이영석은 광주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로 있다. 영국 경제사, 사회사, 노동사에 관해 50여 편의 논문을 썼다. 주요 저서로는 《산업혁명과 노동정책》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다시 돌아본 자본의 시대》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존 해리슨의 《영국 민중사》, 리처드 에번스의 《역사학을 위한 변론》, 존 루카스의 《자연과학을 모르는 역사가는 왜 근대를 말할 수 없는가》 등이 있다.

